

다도해 품은 '여수경도 골프&리조트' 해양관광의 백미

지중해풍 골프장·리조트 '힐링의 섬'

세계 4대 미항 여수, 한려수도와 다도해를 모두 품은 아름다운 앞바다에는 해양복합 리조트 '여수경도 골프&리조트'가 있다.

연평균 기온 섭씨 14.6도의 아늑한 기후와 따뜻한 일조량, 청정한 남해바다가 빚어낸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여수경도 골프&리조트는 국내 최초 아일랜드 골프코스과 지중해풍의 리조트, 어촌체험, 파도소리와 뱃고동 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는 돌레길 코스 등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새로운 '힐링'을 전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현재 골프장과 콘도 등이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골프빌라 200실, 호텔, 기업연수원, 테마파크, 상가시설, 마리나 등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섬 전체를 관광시설로 꾸밀 예정이다. 골프장과 콘도는 전 세계, 전 계층이 찾을 수 있

는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의 1단계 사업에 해당한다.경도 리조트는 여수의 앞 바다에 자리 잡고있어 덩으로 얻어진 자연의 축복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담았다. 대자연이 빚어낸 자연생태가 살아 숨 쉬고 있어 생체적 리듬을 타고 자연과 호흡하며 지내는 시간은 심신의 힐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남개발공사의 설명이다.

포근한 기후는 계절에 상관없이 시간 되는데로 가족, 지인과의 여행이 가능한 곳이다. 여유를 더한 가족여행은 자연생태의 신비로움, 자연의 존엄함, 해양관광 등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지중해풍의 리조트, 어촌체험, 파노라마와 뱃고동소리를 들으며 바닷가와 돌레 길의 산책은 어디에서도 쉽지 않다. 또 국내 최초로 아일랜드 골프코스도 운영되고 있어 골프마니아에게는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다.

사계절 라운딩이 가능한 27홀 코스

국내 최초 아일랜드 골프코스인 푸른 바다를 향해 시원하게 샷을 날리는 골프의 묘미가 링크스 코스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여수경도골프&리조트는 정규 27홀 골프코스로 토너먼트코스인 금오도, 돌산도코스과 리조트코스인 오동도코스나 나뉜다. 설계는 링크스 코스의 세계적인 설계사 DMK Golf Design Ltd의 David Maclay Kidd가 맡았다. 모든 홀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해양횡단형 코스를 3홀 보유하고 있으며, 16개 이상의 홀이 바다와 맞닿아 있어 써사이드 골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연잔디 연습장과 PGA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각종 대회 유치에도 무리가 없다. 오동도코스는 완만한 구릉과 다도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라운드를 하는 내내 골퍼들의 눈을 즐겁게 해 준다. 그러나 평온해 보이는 것과는 달리 정확한 거리를 요구하는 홀들이 많아 한시도 긴

장을 놓칠 수 없다. 특히 8번 홀로 가는 길에 오른쪽을 보면 언덕 위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보호수가 보인다. 각도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보이는 이 나무는 흔히 말하는 '소원 나무'로 나무에 대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다. 소원을 빌며 도착한 8번 홀은 그린에 여러 벙커들로 둘러싸여 신중한 클럽선택과 정확한 샷이 요구되며, 마지막 9번 홀은 중간 거리의 내리막 아일랜드형 홀로 돌산교를 배경으로 오동도코스를 마무리하는 독특하고 인상 깊은 홀이다.

지난 2013년 11월 오픈한 돌산도 코스는 해송숲과 바다를 넘나드는 경관 변화가 뚜렷하며 정신을 맑게 해주는 숲의 기운과 청량한 바다의 기운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오는 6월 오픈예정인 금오도 코스는 남해의 푸른 바다와 시원한 바람이 있고 지형변화가 심한 남서적인 토너먼트 코스로 다이내믹한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클럽하우스 & 럭셔리 콘도... 진정한 '섬'

여수경도골프&리조트 클럽하우스는 전통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전통 한옥 지붕은 웅장하면서도 고유의 처마 끝에서 흐드러지는 '선의 맛'을 그대로 살렸으며, 여수 앞 바다와 코스 전경이 보이는 세련된 내부는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독특함이 있다. 남녀 락카, 사우나, 프로샵 스타트하우스, 레스토랑 등 모든 필요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남 특산품과 공예품을 판매하는 토산품 판매점이 눈길을 끈다.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환상적인 분위기, 바다 한 가운데를 거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써사이드 코스와 독립된 공간에서 진정한 '섬'을 얻을 수 있는 고품격 리조트는 최상의 서비스와 함께 찾는 이에게 감동과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한다. 총 100실 규모의 콘도는 4가지 타입의 객실을 가지고 있다.

지중해 연안 주변 경관을 연상케 하는 건축양식의 특징

적 형태를 모티브로 삼아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했으며, 바다향기 정원의 콘셉트 도입으로 전 객실에서 해양경관 조망이 가능하게 하는 등 해양관광의 정취를 최대한 느낄 수 있는 숙박시설로 조성했다. 또 250여명이 수용 가능한 최첨단 대연회장, 세미나실 등이 구비돼 대규모 단체 행사가 가능하며,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 수영장과 환금빛 노을이 함께하는 야외 바비큐파티에서 남도의 식도락을 만끽할 수 있다.

국동항에서 경도까지 약 500m의 바닷길을 연결한 양방향 차도형 여객선도 여수경도골프&리조트를 찾는 골퍼와 관광객에게 재미로 손꼽히고 있다. 총 승선인원 95명, 승용차 16대를 싣고 운행되는 240t급의 이 여객선은 양방향 승하선식 방식으로, 고객들의 편의에 신경을 썼으며 고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계절 라운딩이 가능한 여수경도 골프장 전경. 27홀로, 토너먼트코스인 금오도, 돌산도코스과 리조트코스인 오동도코스 등 3개의 코스가 있다. 모든 홀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창사 62주년

미래를 움직이는 힘!

21세기 환경친화적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 전문기업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기업

(주)탑인프라
(주)티아이지

공익·수익 조화...경영 내실 다져 3년 연속 흑자낼 것

전 승현 전남개발공사 사장

전남의 대표적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며 전략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제5대 사장에 취임한 전승현(60)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성과 중심의 조직 체계, 공익과 수익의 조화를 양축으로 전남개발공사의 변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 공사 경영에 중점을 두었던 목표나 운영 방안은.

▲전남개발공사는 지금까지 공익적 차원의 투자와 개발에 중점을 뒀다. 이제는 자체 수익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공익사업에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순기능적 역할이 중요하다. 공익과 수익이 조화를 이룬 지방공기업 모델 창출을 위해 성과중심의 조직체계를 공고히 하고 화합과 소통의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내부결속력을 다져 나가는 것을 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경영혁신TF팀과 지속가능경영TF팀이 혁신체계 구축과 미래 성장기반을 다지고 있다.

-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는데.

▲공사는 지난 2012년 영업이익이 292억원, 당기순이익이 156억원의 실적에 이어 2013년에도 영업이익이 182억원, 당기순이익이 68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대금회수 1756억원의 실적을 올려 당초 목표를 18% 초과 달성하기도 했다. 기존 인사 관행의 틀을 깨는 과감한 인사교류 등으로 공사 내부서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한 것이 그 배경이 된 것 같다.

- 2014년 경영목표는.

▲올해 토지분양 1491억원, 대금회수 1564억원, 일반 매출 309억원, 회원권 분양 210억원을 목표로 정하고 3년 연속 흑자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경영 내실을 다지는 가운데 신규사업개발 등 신성장동력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2014년 주요 핵심사업은 지난해 말 발주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총 5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개발할 예정이다.

- 전남개발공사의 부채현황과 감축계획은.



▲2013년 말 기준 공사의 부채 비율은 135.9%로, 16개 광역지자체 도시개발공사 중 제주, 대전에 이어 3번째로 낮다. 공사의 경우 정부 목표치보다 낮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부채감축 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나갔겠다.

- 부동산 투자인민제 관련 규제개혁을 건의했는데.

▲부동산 투자인민제한 여수경도리조트를 포함해 국내 휴양시설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주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유인제도다. 관광진흥법시행령에는 1객실당 분양인원이 최소 5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외국인들은 정서상 호텔이나 콘도 회원권을 1객실당 1구좌를 선호해 제대로 된 투자를 이끌기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특별법으로 1인1구좌 분양이 가능하게 했는데, 외국인 투자실적이 많은 것으로 안다.

-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10년 동안 공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던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도정 시책에 부응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전남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